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62> 시주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운 여름날 밭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던 농부가 부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일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는 땀 한 번 흘리는 법이 없이 먹고 사는 부처님이 못마땅하여 물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열심히 곡식을 가꾸어 먹고 사는데 당신네 비구들은 왜 하는 일도 없이 밥을 얻어 먹고 사는 것이요?" 부처님은 농부에게 "비구들은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많은 사람에게 좋은 법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도 올바른 인과(因果)도 잘 알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처님과 신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시주를 받아 죽을 먹으면서 축원하되 그 잘못을 알지 못한다면 이 또한 단월의 정성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시주를 받아 공양을 하고 염불하면서 부처님의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이 또한 성현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得粥視願不解其意亦不權越應羞恥乎得食嚼咽不達其趣亦不賢聖應慚愧乎)"

자의 처지에서 감히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린 농부라도 굶주림의 고통이 늘 도사려 있는 것이요, 벼를 찌는 여인네라도 매서운 추위에 자신의 몸을 가릴 옷조차 없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하물며 땀 흘리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손을 놀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추위와 굶주림을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는가? 부드러운 옷이나 맛있는 음식에 들어간 그 깊은 시주들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공양을 받는 일은 도무는 길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다. 떨어진 옷이나 거친 음식이라 하여 시주의 은혜가 가벼울지라도 고마운 마음을 지닌다면, 시주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음덕(陰德)을 쌓게 될 것이다. 이번 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得粥視願不解其意亦不權越應羞恥乎得食嚼咽不達其趣亦不賢聖應慚愧乎)"

받는 일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경(經)에서도 "수행을 하지 않고 신도의 공양물을 축내는 것은 큰 도적"이라 하였으니 참으로 겁나는 일이다. 이 이치를 알고 있는 아운(阿雲) 스님은 밥 한 술이 농부의 땀 한 방이요 시주의 핏물 한 방인 줄 알고 "이번 생에 참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한 방울의 물도 시주의 은혜를 갚기 어려울 것이니라(今生未明心滴水也難消)"고 말하였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 '시물' 그냥 생기는 공것으로 생각하면 잘못

#### 공양 올린 사람들의 피 땀... 소중함 알아야

라고 말하였다. 아운(阿雲) 비구도 <자경문(自警文)>에서 도(道)를 닦는 수행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을 '부드러운 옷이나 맛있는 음식 같은 공양물을 함부로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곡식이 되어 나에게 이르기까지는 이 공양물에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것이다. 농부들이나 벼를 찌는 처녀들의 피땀 어린 땀방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죽어간 벌레나 짐승들의 희생을 얼마나 되는지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나온 이렇게 하는 일은 참으로 옳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미물일지라도 소중한 그들의 생명을 죽여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수행

功力多重 亦乃傍生損善無窮 勞彼功而利我 尙不然也 況殺他命而活己 奚可忍乎. 農夫每有飢寒之苦 織女連無遮身之衣 況我長遊手 飢寒何厭心. 軟衣美食 當恩重而損道 破納蔬食 必施輕而積陰 今生未明心 滴水也難消"

수행자의 몸에 걸치는 옷과 입에 들어가는 한 톨의 쌀, 거기에겐 길잡이는 여인네와 농사짓는 농부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시물(施物)을 받아쓰는 것을 그냥 생기는 공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잘못이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 사람들의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그 과보를 건디지 낼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인과(仁果)의 법칙이며 인연(因緣)의 소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을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주의 공양을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4>



#### 심리적 문제의 해결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문제라 보고, 상담심리학에서는 각 조류별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을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심리학과 불교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세계를 방산에 비유한다. 의식은 방산의 보이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수면 아래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의식이란 한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을 말한다. 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으로 떠올릴

### 조건없는 수용·존중 통해 인간적 조화 찾아야 불교적 해결 '삶이 곱' 인정하는 데서 출발

수없는 생각이나 감정이다. 이 속에는 자기 스스로나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감정, 무의식의 내용이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하며,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가장되거나 왜곡된 증상, 억압된 경험을 감당 가능한 영역인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스스로 처리할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보는 심리적 문제의 해결법이다. '무의식의 의식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행동주의에서는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학습된 부적응 행동을 소거하고 적응적 행동을 새로이 학습하여 대처하는 것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행동 수정'을 통해 심리

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가 괴로움(苦)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세 가지의 변화 없는 진리라는 의미의 삼법(三法印)에서 앞의 두 가지, 즉 제행무상·제법무야가 곧 모든 것이 괴로움이란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바로 보고 인정하는 데서 인간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苦聖諦)에서 출발하는 사성제(四聖諦)가 바로 그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괴로움이며, 그 인간이 가지는 생로병사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해탈에 이르러 다시는 윤회전생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심리적 문제의 해결법, 인간 문제의 근원적 해결법이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 다라니(陀羅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제작연도에 대한 문제부터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기관 문제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최근 관심의 핵심에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다라니를 염송하면 복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이다. 다라니란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힘이 있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불교의 진리가 함축된 말을 의미한다. 비교적 긴 장구(章句)로 되어 있는 주문으로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라 번역하기도 한다. 불법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게 하는 힘이다. 진언, 주문과 같이 쓰이는 범어로 된 글이다. 다만 다라니는 긴 문장형식이고, 진언은 한 자에서 한 두 줄 사이의 짧은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라니와 진언은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지 않고 음사(音寫)했다. 보고, 읽고 외우고 염송

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으로 인한 의미의 제한을 방지하자는 것과 그 신비성을 간직하자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다라니는 뛰어난 기억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총지란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것까지 연상하며 다 기억한다는 뜻이고, 능지란 여러 선법(善法)을 능히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능차란 악법을 능히 막아 준다는 뜻이다. 특히 밀교(密敎)에서는 진언(眞言)과 다라니를 지송(持誦)함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고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요기까지 무의식?

그림 : 문병성

## 새로운 연등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마음의 빛으로 승화하시고 소원성취 하소서

차량 탑재 가능  
1톤 트럭탑재시 폭3M 높이 3.5M  
차량 자체전원으로 점등가능

소품형(가로등대용) - 각종행사시 연등걸이대로 사용가능

아치형-사찰입구 및 경내에 설치

\*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E2LINC.COM)

등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전구는 LED로써 필라멘트 전구보다 10%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므로 매우경제적임.

**e2l LIGHTING DESIGN** **이투엘아이엔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2가 10-1번지  
제작 및 납품 문의: 02-2633-4955